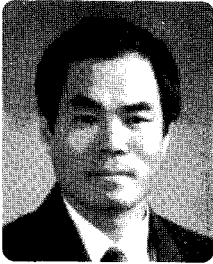


낙농역사를 바꾼 우유대란의 교훈



김인식
前 농촌진흥청장 (당시 본회 전무이사)

우려했던 원유 과잉조짐이 2002년 초부터 현실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1~2월의 원유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한데 비해 유제품 소비는 동일하면서 백색시유는 감소하고, 유제품 수입량은 7.1% 증가하여 불안을 가중시켰다.

협회에서는 2001년부터 여러 상황을 들어 우유과잉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낙농진흥회의 수급상황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예측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용 회장이 기획 있을 때마다 농림부 간부들에게 원유수급 상황이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다며, 예견되는 적신호 상황을 설명하여도 별로 걱정하는 반응이 아니라며 농림부를 다녀오시고 나면 함께 앉아 고민하시기 일쑤였다. 2002년 2월로 기억된다. 김남용 회장님이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진흥회의 원유수급 문제를 이대로 두면 엄청난 사태로 번질 가능성





- ① 수입 유제품에 대응할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한 낙농육우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02. 3. 13)
- ② 낙농육우 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02. 5. 8)
- ③ 낙농육우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03. 4. 24)

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였더니, 그럴 리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실무자로부터는 그런 보고조차 없었다고 하더라며 한숨지으시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 뒤 열린 이사회에도 이러한 내용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예견된 우유대란이었는데...

김남용 회장님의 경험만이 아니다. 내가 농림부 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 누누이 대책마련을 강조할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었다. 농림부는 낙농진흥회라는 우유수급 조절기구가 있으니 오히려 안도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원유과잉으로 남는 원유가 분유로 가공처리 되면서 2002년 3월의 분유재고는 1만6천톤을 훨씬 초과하여 이미 1998년 IMF 당시 재고 수준을 넘어서 우유대란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협회에서는 누차에 걸쳐 건의해온 대로 중·단기 대책방안이 각 주체별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낙농가는 저능력우 도태 등 감산에 동참하고, 낙농자조금 조성에 전원 동참할 것과 송아지 모유먹이기 운동전개와 비유축진제 사용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전국의 농가들에게 이를 홍보해나갔다. 유업체에는 수입모조분유 대신 국산분유 사용과 공동우유 홍보기금의 조성으로 광고실시를 한국유가공협회에 제안하였고, 낙농진흥회에는 낙농가에게 약속한 생산보장 이행을 위한 소비

홍보 실천 방안으로 자조금 불참농가의 자조금 거출, 수급조절 본연의 역할 등을, 정부에는 도태장려금 마련, 재고분유 소진대책, 낙농진흥회 관리감독 철저, 모조분유 수입 억제대책, 학교급식 확대 및 군급식 용량확대, 재고분유의 북한 조사료와 교환사업 등이 당시 건의의 주된 골자였다. 방문해서 설명하고 문서로도 전달하는가 하면 전문지에 홍보를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다.

특히 낙농진흥회 농가들은 가입당시 진흥회에서 향후 10년간 생산안정 보장을 약속하였노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진흥회는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실천사업이나 활동이 전무하였고 남아도는 원유를 분유가공 처리하는데 급급할 뿐이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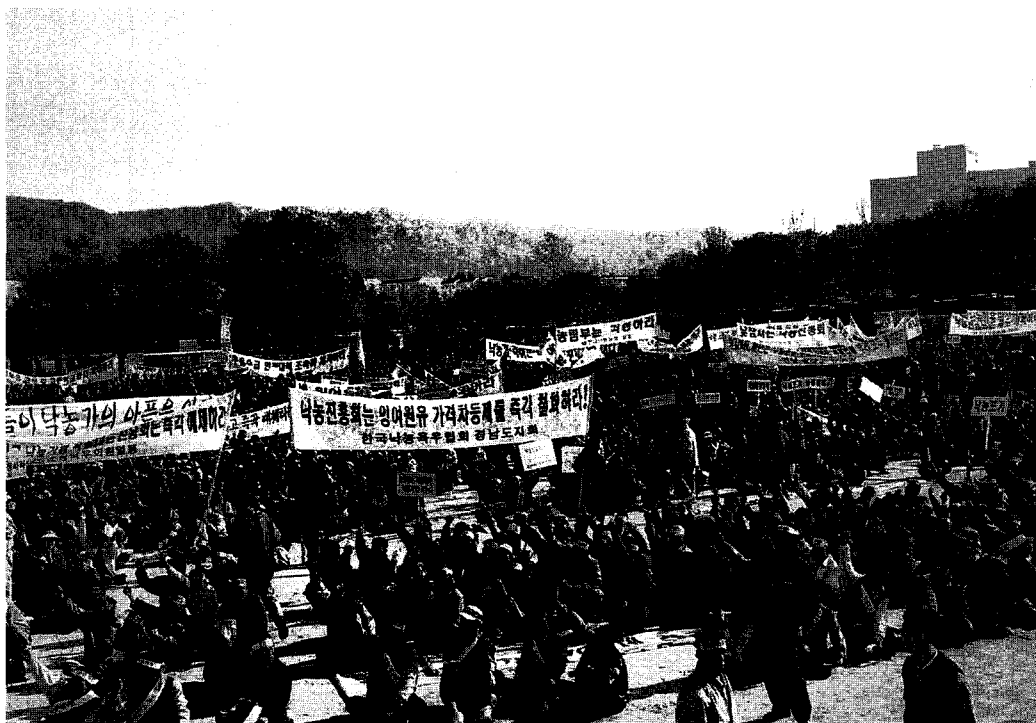
당시는 또 WTO협상이 추진되면서 국내 농민단체들은 연일 정부를 성토했으며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분위기여서, 협회에서는 낙농선진국의 값싼 유제품 수입에 대응한 대책마련을 위해 ‘WTO 대응 낙농육우산업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관계자, 학계, 유업계, 낙농조합, 단체, 낙농가 등을 참여토록 하여 3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응책을 준비해가는 시점이었다. 또 자조금 홍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V광고 위주로 집중시키고 김창규 산부인과원장의 홍보대사 선임, 김숙희 전교육부 장관에게 우유소비촉진 식생활 용역실시, 협회 여성분과위 우유홍보활동 지원 등에 각별한 관심으로 집중하였다. 연일 회장님과 마주 앉아 우유대란을 축소시키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대책마련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협회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진지한 검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농림부나 진흥회, 유가공협회 공히 마찬가지였다.

농림부는 4월초 낙농가의 원유가 5% 인하방침을 제시하였고, 이에 낙농가들은 즉각 반발하였는가 하면, 협회는 긴급회장단 회의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유가 인하가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소비확대에 도움이 되지않는 사유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대신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젖소 도태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두 달간 젖소 2만2천두가 도태되었다. 6월에는 낙농사상 처음으로 2만톤에 육박하는 분유가 쌓여갔고, 낙농진흥회에서 체세포와 세균수를 강화하는 원유가 개편안으로 약 32원의 유대가 인하되는 방안이 제시되자 낙농가와 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행을 추후로 미루는 사건도 발생되었다. 8월에는 낙농진흥회에서 정상유대 지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유수급조절 6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유산정체계 강화, 원유기준가격의 조정, 생산쿼터제, 용도별 및 계절별 가격차등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협회에서는 낙농가의 피해만 보는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응하였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도 낙농가 대표들의 입장은 확고했다. 결국 진흥회 이사회에는 낙농가 대표가 반대하여 불참한 가운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가 표결 처리되었고,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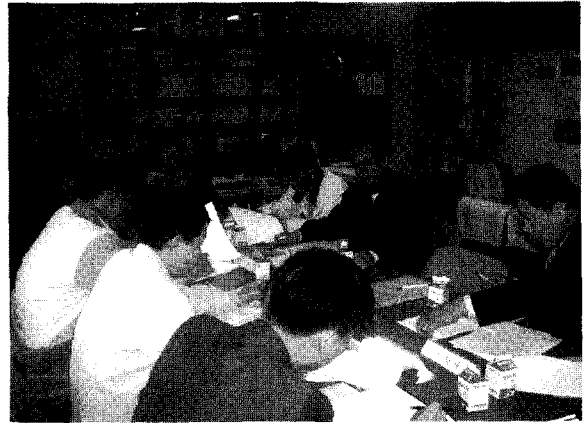
회를 탈퇴하였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남은 원유의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고 가입 낙농가와의 약속위반인데다 이전에 없던 감산제도이므로 낙농가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발은 엄청났다.

협회장이 각목에 맞아 피 흘리고

결국 그해 10월 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낙농인대회가 개최되고 분노한 낙농가들의 거친 항의시위가 있었다. 대회장은 분노한 6천여 낙농가들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정부와 낙농진흥회의 성토장이 되었다. 플래카드나 구호에는 낙농진흥회 해산이 주를 이루었다. 수백명의 흥분한 낙농가들이 대회를 진행하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정부청사에 쳐들어가지 않는다며 돌과 각목을 단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투척하자 단상의 대회진행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모두 피해버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김남용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낙농가들을 설득하려 하자 낙농가들이 던진 각목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고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 회원이 회장을 각목으로 폭행하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된 것이다.



그날 그 사태를 바로 곁에서 목도하면서 연로하신 회장님께 너무도 죄송하였고 너무도 참담한 심정이었다. 회장님은 그 해에 또 농민단체 공동으로 개최한 한·칠레 FTA 반대 집회 주도자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우유수급 불균형 초래와 잉여원유차등제는 다른 주체가 만들고 정책 대책 마련에 주도한 낙농가 대표는 낙농가로부터 폭행당하는 사태를 두고 나는 오랫동안 심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협회에서 일하는 동안 비록 회장님을 잘 모시지는 못했어도 낙농산업의 발전과 낙농가 대변에는 회장님과 함께 자부심을 느낄 정도였고, 타단체에서도 우리협회의 위상을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회원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진흥회 낙농가 2차 대표자 회의

1997년도의 낙농진흥법 개정 역시 그러했다. 낙농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서 개방에 대응해야 하고, 그러자면 반대도 많지만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회장님과 뜻을 같이하여 법개정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전국 낙우회별 찬반여론 조사결과와 법개정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 국회 건의 활동에 매진하였고, 국회에서의 공청회에 찬성 쪽 논리를 내가 나서서 주장하게 되어 충남지역의 반대를 주도한 유인명씨와 국회로까지 자리를 옮겨서 또다시 운명적인 대결을 하게 되었고, 농해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농림부가 10년간 추진해도 불가능했던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낙농가를 위하고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급조절기구로서 낙농진흥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수급안정을 기대한 수급조절 기구로부터 돌아온 결과치고는 너무도 서글프고 허망했다.

엮힌 데 엮친 격으로 그해 초 SBS TV에서 다큐멘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으로 소위 채식열풍 붐이 일면서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 소비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소비는 정체되고 생산은 늘면서 분유재고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기록했다.

IMF때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었는데

IMF 사태가 몰고온 1998년의 우유체화 사태와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IMF 사태의 우유체화는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낙농가들이 뭉쳐 자조금으로 소비홍보에 매진한 결과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고, 낙농가들이 단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에 야기된 우유체화 사태는 주로 인위적인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었다. 양질의 조사료 급여와 사료개발, 낙농가의 사양기술 및 경영개선, 종축개량 사업의 활성화 등이 원유의 생산을 늘린 주요인이었다. 여기에 진흥회가 낙농가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증산을 야기시킨 것이 우유 대란으로 나타났다.

우유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낙농업이 시작된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다. 소비의 계절적 편중현상으로 비수기는 분유 재고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성수기에는 해소되는 현상이 연중 있어 왔다. 비수기에 재고수준이 유업체의 소진한계를 초과할 경우 낙농가와 마찰이 생겨나고 낙농가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협화음 속에서 성수기 판매신장이나 소비확대 등의 조절능력이 발휘되어 그런대로 해결되면서 낙농업을 영위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체적인 수급조절능력이 없었다. 진흥회의 기능이 종전에 낙농가의 원유가 유가공업체로 직접 납유되던 것을 절차상 낙농진흥회를 경유하여 납유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업체에 납유하지 못한 원유는 그대로 잉여될 수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유가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진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업체가 사가지 않는 원유는 재고분유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재고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재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드러난 수급상황을 보면 가입 낙농가 생산량은 1일 2,500여 톤임에도 유업체가 사가는 원유량은 1,700여 톤에 불과하여 1일 무려 800여 톤이 남아돌았다.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농림부에 의하면 2002년 진흥회의 잉여원유 처리예산이 1,387억 원이 소요되었고 1일 약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산마련이 어려우니 과잉된 양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결과

처리에 외면할 수 없는 협회로서는 어이가 없었다. 유업체에 납유할 판매량에 추가적으로 낙농가 가입을 추진하거나 가입 낙농가들이 증산하여 구입량이 800여 톤이나 초과되도록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서울우유, 부산우유 등이 탈퇴함으로써 진흥회 가입 낙농가가 약 2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7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낙농진흥회 미가입 농가들은 진흥회 감산정책에 따라 그대로 모방하여 감산 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가공업체로서는 어쩌면 좋은 호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2002년, 2003년 우유대란은 낙농진흥회 문제로 귀착된다.



결국 외부인끼리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2003년 3월 23일 농림부는 진흥회 우유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잉여원유 810톤 감산정책을 제시하였다. 폐업시 원유 1kg당 2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그러자 전국의 진흥회 가입 낙농가들이 흥분하며 들고 일어났다. 도처에서 원유를 쏟아 붓는 집단항의 시위가 전개되었고 진흥회와 정부를 성토했던 성난 낙농가들의 모습이 연일 TV 뉴스 화면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협회에 대한 비난과 항의도 빗발쳤다. 협회로서는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주로 전화 항의가 쏟아졌는데 전무인 나에게 집중되었다. 원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한밤중 술에 취해 협박전화를 하는 등 낙농가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치질 않았다. 협회가 마치 사태의 주범인양 몰아부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일일이 설명하거나 대응할 수도 없었다.

결국 진흥회 사태수습을 위해 진흥회를 제외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농림부의 대책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810톤 전량감소를 위해 폐업보상금 리터당 2만4천원 제시가 농림부의 주된 대책내용이었다. 농림부가 소집한 진흥회의 원유감산 대책회의는 과천청사 지하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되어 주로 새벽까지 계속되곤 했다. 당시 김달중 축산국장과 과장, 진흥회 낙농가 대표, 집유조합장, 협회 전무 등이었는데 감산을 제안한 농림부

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참석자간의 극한 대립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저녁을 굶는 것은 물론이고, 물 한잔 마시지 못한 채 토론을 하며 서로의 주장 관철을 위해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810톤 전량 감산방안에 낙농가 입장에서 감산반대만 주장하였지 대안은 없어, 주로 내가 주도해 낙농가 입장을 제안하여 회의가 진행되다 시피 하였다. 수차의 회의가 열렸고 마지막 회의 역시 새벽까지 계속되어 410톤 폐업감축, 폐업보상금 ℓ 당 12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참석 대표들이 내게 폐업보상금은 10만원까지만 높이면 농가 설득에 문제없다고 제시하였기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림부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이로써 길고도 괴로운 진흥회 우유대란 사태의 수습방안이 결론지어진 것이다. 농림부 회의가 진행되던 5월 세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정대근 회장을 면담하고 농협의 목우촌우유 공장폐쇄 등 잉여원유 책임을 강조하여 농협에서 별도로 폐업보상금 3만원/ ℓ 의 지급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정부와의 협상이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였지만 낙농가의 입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 물론 낙농가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상황이어서 어려웠고, 죄스럽기도 하였다. 협회에 불만을 갖고 항의 전화하던 낙농가들도 다수가 참석하여 회의를 지켜보았고 내게 위로하기도 하여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회의 결과를 두고 전국의 낙농가들의 반응은 상반되었다. 그런대로 이해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농가들이 더 많았다. 불만을 가진 낙농가들의 각지역별로 농가대표들이 농림부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는 협회로 향했고 전무인 내게 전화가 빗발쳤다. 농림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지역대표들이 지역에서 낙농가 설득에 실패하였거나 입장이 난처해지자 협회전무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짐작되었다.

지나간 숨은 일화에서도 참고해야

진흥회 수급문제로 인해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도 제법 있다.

1

그 무렵 나는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협회가 제시한 각 주체별 역할 분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부를 방문할 때마다 강조하고 다녔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감산대책이나 원유가 인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간부들에게 설득하려 애를 썼다. 어느 날 축산국장실에서 몇몇 국장들이 있는 가운데 차관과 논쟁이 오갔다. 낙농문제라면 그래도 잔뼈가 굵으면서 경험한 터라 결코 밀리지 않게 주장하게 되었고 다들 나의 주장에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김 전무가 과격하고 문제있는 인물이라며 차관으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그 일로 그 차관에 대한 호감은 사라졌고,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했다. 혹시라도 부딪힐 기회마다 서로 거북스러웠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도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2

진흥회 수급불균형 문제가 한창 낙농가의 불만을 사면서 전국이 시끄러울 즈음, 인터넷상에는 협회와 전무를 비난하는 글이 날마다 올라왔고 주로 음해성 내용이 주류였다. 직원들과 상의하여 분석해보니 방치해서 아니된다는 결론이었다. 비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낙농진흥회 직원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낙농진흥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를 의심케 하였다. 전문지에 사과문을 내는 선으로 마무리시켰지만 아직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3

진흥회의 우유대란 사태로 나라 안이 온통 낙농가들의 항의시위 등으로 시끄러울 때 집유조합장협의회에서 농림부에 건의문을 내어 전국 낙농가들로부터 심한 빈축을 산 적이 있다. 낙농가들의 원유가가 높고 수익률이 높아 증산된 것이므로 원유생산을 10% 감산해야 하고, 그래도 수급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모든 낙농가의 진흥회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의문의 주된 내용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집유조합장들의 진흥회나 우유수급에 대한 문제해결 인식정도를 짐작케 한다. 건의문이 자발적이었는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였는지



는 알 수 없지만 사태해결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판에 곁에서 힘을 빼는 행태에 협회로서는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4

농림부와의 협상 후 진흥회 낙농가들로부터 전화에 시달리고 있을 무렵, 당시 동진강낙협 정세훈 조합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누가 뭐라 해도 김전무가 고생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위로하면서 고생한 몇 사람이 모여 식사하자는 것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전화를 받아 전북 김제 인근 무슨 가든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려오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터에 약속날짜에 차를 몰고 내려가기로 했다. 그때는 마침 축산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산박람회를 협회 주관으로 COEX에서 개최하고 있었다. 나는 전무로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지만 아침 일찍 행사장에 출근하여 대충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한 뒤 약속장소를 향해 갔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정작 초청한 정세훈 조합장은 보이지 않고 불만을 가진 전남북의 낙농가들이 대절한 버스에서 우루루 내리며 모여들



어 약속장소는 원유갑산을 주도한 김인식 전무의 규탄장이 되어 있었다. 아침도 굶고 간 사람에게 점심은커녕 식당 홀은 어느새 마이크가 설치되었고 앞에 나가서 낙농가들에게 갑산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제법 살벌한 분위기 마저 느껴졌다.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낙농가 앞에서 약 한 시간 넘게 설명했고, 거친 질문에 도 막힘없이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전무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갑산을 막을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무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뒤 협회를 그만두겠노라고 선언하고 자리에서 나왔다.

아침 점심을 굶은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올라오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20여 년간 낙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이 낙농가 앞에서 무참히 외면당하는 것이 너무 서럽게만 느껴졌다. 물론 회장님께 이를 보고 드렸고 회장님은 사표만은 절대 안된다며 극구 만류하셨다. 이튿날 류중수씨가 축산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COEX 행사장으로 찾아왔다. 전날 모임의 농가대표 자격으로 올라온 듯 했다. 내게 제발 사표만은 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협회를 떠났다.

5

과거 진흥회 가입낙농가들의 주장에는 진흥회 가입시 10년간 생산보장을 약속받았노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농림부 갑산대책 발표시 항의가 더욱 격렬하였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약속이었는지 개별농가에게 제시한 약속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대다수 낙농가들의 주장이고 보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여론이었다. 어찌면 정부가 10년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낙농진흥회 직원들이 가입 유도를 위해 제시한 내용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협회를 떠나와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으로 있을때 감사원이 우유대란 사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낙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농진흥회 직원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낙농가를 신뢰해온 나로서는 감사원 직원 앞에서는 드러내놓지 않는 낙농가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너무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태를 교훈삼아야

당시 우유대란은 젖소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증산요인과 소비정체 현상 등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유업체들은 지난



역사 내내 정도의 차는 있지만 낙농가와 크고 작은 마찰 속에서도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그런대로 극복해 온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가 등장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 거래교섭력을 높여 낙농가를 보호하고 수급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낙농진흥회가 초기부터 낙농가 가입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유 과잉을 더욱 부

추쳤고 그 결과로 사상 초유의 우유대란을 불러와 폐업제도와 차등가격제를 만들어 내었다. 한국의 낙농역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수급조절 기구가 오히려 수급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당시의 그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진흥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씨를 진흥회 회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낙농가들이 나서서 반대하였고 협회에서는 임원들이 농림부장관 면담을 하면서까지 반대하였다. 낙농 문외한인데다 전직에서 해온 낙농과오를 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회장을 맡았을 때의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농림부는 임명을 강행했다. 농림부가 진흥회 전무 자리로 보낸 인사 역시, 가축을 연구해온 연구전문가였지, 축산관련 수급문제를 다룬 경험을 갖고 있지 못했다. 낙농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없는 데다 전문성 있는 건의마저 귀를 닫고 운영해온 결과가 빚어낸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가 있다한들 운영은 역시 사람이 한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하는지 모른다. 더욱이 복잡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낙농문제 해결에는 더욱 실질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FTA를 통해 낙농선진국과의 무한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의 낙농관련 기관이나 단체끼리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다면 참으로 위협해질 수 있다. 지난 날의 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단합하여야 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낙농산업의 안정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㉞